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방안'

결과 중심에서 성장과 과정 중심으로... 사전 등록된 교내대회 수상경력만 기록

수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생부종합) 비중이 점점 커짐에 따라 학생들은 학생부 준비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결과 중심에서 성장과 과정 중심으로 학생부를 기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내 수상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는데 즉 연초 계획되어 사전 등록된 교내대회의 수상경력만을 기록하도록 개선된 것.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수상의 남발을 막고 모호한 수상을 표준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또 올해부터는 신입생부터 기존과 동일하게 학생의 진로희망을 적고 희망사유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적도록 변경됐다.

학생의 진로희망과 상이한 경우가 많은 학부모의 진로희망과 성장과정에서 수시로 변하는 특기 및 흥미의 사례는 전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과학습발달 사항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경우 기존에는 결과 중심으로 기록하거나 분량을 많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술했는데 이번 개선안은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와 노력, 자기주도 학습에 따른 변화와 성장 등에 초점을 두고 기재하도록 변경되었다. 과제연구의 경우 교내, 학생중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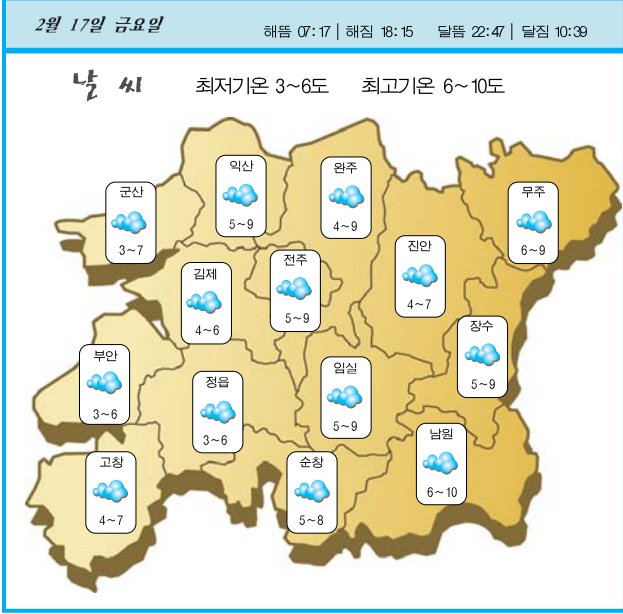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전달 후회금을 기탁했다

(좌)정동호(수석) 박정원(대표)과 직원들이 16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주 시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을 위해 새달라며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50만원의 후회금을 기탁했다

과제연구만 기재가 가능하고 기재를 하더라도 연구 과제명, 참가인원, 연구 소요시간 등만 기재하도록 변경됐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자율탐구활동이 축소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율 탐구활동이 자소서에서 중요한 제재가 되고 면접의 중요한 질문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결코 축소되

지 않았다. 독서활동의 경우 대폭 기록 내용이 축소되어 책명과 저자만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독서활동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선안의 요지는 학생부에서 교사의 평가보다는 학생의 성장 과정과 변화 자체를 객관적으

로 기록하겠다는 것. 학생의 행동 과정이 담백하게 기록된 학생부는 대입에서 학생을 평가하기에 타당한 서류가 될 수 있고 실제 학생이 노력한 과정의 기록을 통해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대학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해은기자



전북도교육청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수상품 특별판매전'

도교육청이 공단 폐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판로를 돕기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수상품 특별판매전'을 연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관하고 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도교육청 1층 로비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교직원과 민원인, 전북도민 누구나 현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싼값에 구매할 수 있다. 참여 업체는 시스브로(기능성 속옷), 성화물산(양말), 렉시(기능성 양말), 베이비누리(아동내의), 로만산(시계), 석촌도자기(주방용품), 알디엔웨이(등산화) 등 9곳이며 가운데 베이비누리와 성실섬유는 전북 업체다. 이들 업체는 행사 기간에 1백여종의 우수 상품을 50~7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특별판매전은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로 입주업체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이뤄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1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입주기업들을 돕기 위해 특별판매전을 준비했다"면서 "교직원들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특별판매전을 열어 7억원의 판매 성과를 올렸다"면서 "올해는 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특별판매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전주시, '물종합기술연찬회' 빗물자원화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선진형 지하수관리 통합정보인프라 구축·운영' 성과

전주시가 아쉽게 추진한 빗물이용 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시스템 운영이 빗물자원화 분야 전국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김태수)는 16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년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사람우선·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추진해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선진형 지하수관리 통합정보인프라 구축·운영' 성과를 토대로 빗물자원화 분야 최우수 기관 표창(국회부의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지난해 12월 경주에

서 열린 '2016년 하수도연찬회'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쾌거다. 이날 시는 그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지하수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세수확대 및 환경보전'과 '빗물이용시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해 전국 공무원과 기업 및 기업 관계자 연구소 학계 전문가 등 1,000여명의 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대표적으로 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10년부터 총 6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총 145개소의 빗물이용시설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공공시설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공동주택, 일반주택 등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은 전체 저장용량이 총 1825톤 규모로 조경과 잔디, 텃밭, 청소 세척, 화장실 분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시는 시민들이 보다 깨끗한 빗물을 저장해 이용할 수 있도록 탄소빗물여과 장치 보급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시는 빗물이용시설의 확대 설치와 실용화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빗물사용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시행 △빗물이용시설 정기 지도점검 및 사후 유지관리 강화 △빗물이용시설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빗물

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빗물이용시설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에 힘써왔다. 시는 앞으로도 빗물이 스며들어 조성되는 지하수를 소비대상이 아닌 후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공적 자원이라는 개념을 시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킬 계획이다. 또한 △지하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지하수 공인유통망 확대 설치 △검침관리 지하수시설 옥외 검침시스템 확대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방안과 관리기법을 최대한 활용해 지하수의 적정량 이용과 안정적인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도깨비책방, 22~25일까지 운영

사용한 공연·전시·영화 유료관람권을 제출하면 책으로 교환해주는 '도깨비 책방'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전주롯데백화점 7층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주관하는 '도깨비 책방'이 문화가 있는 날인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서적 도매상인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1인 출판사를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도깨비책방에서 교환해주는 책은 송인서적

부도로 1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1인 출판사에서 출간한 도서들이다. 도깨비책방에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발견 및 사용한 공연·전시·영화 관람권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1권의 책을 교환해줄 예정이다. 시는 동네서점 활성화를 위해 전주 시립도서관과 독서동아리연합회 공동으로 분야별 추천도서 목록을 배포하고, 추천도서를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서점에서 구입할 경우 10%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